

자산관리 사무업무 강화

국민연금, 하나펀드서비스와 일반사무관리 계약 체결 혁신도시 전주센터 거점으로 국민노후자산 밀착 수행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하나펀드서비스(주)와 국내 위탁운용 자산에 대한 순자산가치 산출과 법규준수 점검 등의 일반사무를 담당하는 일반사무관리 업무 계약을 맺었다고 9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기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투자자산에 대한 순자산가치(Net Asset Value) 산출과 법규준수 여부 점검, 주식 매매체결 지원 등에 대한 일반사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무관리회사를 두고 있다.

지난해 6월 선정 공고를 거쳐 12월 하나펀드서비스와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까지 이관 자산에 대해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해 왔다.

하나펀드서비스는 하나금융그룹의 계열사로 2003년 설립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일반사무관리회사이며, 이번엔 국민연금의 국내 위탁운용 자산에 대한 업무를 수탁하면서 국내 업계 1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하나펀드서비스는 최대 고객인 국민연금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월 공단 본부가 있는 전북 혁신도시에 전주센터를 설치하고 18명의 상주 인원을 배치했으며, 전주센터를 거점으로 주식 및 채권, 대체투자 등에 이르는 약 137조원의 국민연금 국내 위탁자산에 대한 사무관리 업무를 밀착 수행하고 있다.

김용진 이사장은 "국민의 노후자산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며 "전주에 국민연금 담당인력을 대폭 배치한 하나펀드서비스를 통해 국민연금기금 위탁 운용자산에 대한 사무관리 업무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올해 춘기 누에씨 내달 12일까지 신청해야'

전북도농업기술원(원장 박경숙)은 봄철 누에 사육기를 맞아 2021년도 춘기(봄) 누에씨 신청을 3월 12일까지 시·군 행정기관 또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받는다고 밝혔다.

올봄에 공급하는 보급누에씨 물량은 450여 상자이며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에 좋은 홍집에 적합한 품종인 백옥잡으로 대상은 전북 14개 시군 누에사육 희망 농가다.

봄누에씨 보급은 5월 중순, 5월 하순, 6월 상순 등 3회에 걸쳐 공급할 예정으로 누에사육을 희망하는 농가의 영농계획 및 여건에 맞춰 사육 시기를 조절해 필요한 수량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공급하는 우량 누에씨는 농촌진흥청에서 받은 누에씨를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잠사곤충시험장에서 증식하여 보급누에씨를 생산하고 양잠 농가에 공급한다.

아울러 매년 3월 중순 무렵 전북도 누에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양잠 교육 및 누에사육 협의회를 실시했으나, 올해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정은 미정이다. 잠사곤충시험장은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보면서 사육 농가와 협의를 통해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귀농인을 중심으로 키위나무에 열매가 달리지 않는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키위 열매 맺는 성질과 암수 구별 방법을 9일 소개했다.

키위, 열매 잘 맺게 하려면? 나무 성별 확인 '최우선'

수꽃 꽃가루 받아 암꽃에 인공수분해야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최근 귀농인을 중심으로 키위나무에 열매가 달리지 않는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키위 열매 맺는 성질과 암수 구별 방법을 9일 소개했다.

키위나무(참다래)와 다래나무는 다래나무과 다래나무속에 속하는 대표적인 암수딴그루(자웅이주, 雌雄異株) 식물이다. 즉, 가로수로 많이 심는 은행나무처럼 키위와 우리나라 토종인 다래는 암나무와 수나무로 구분된다. 키위는 보통 암나무만 심어 과실을 생산하는데 주변에 있는 수나무로부터 꽃가루를 받지 못하거나 인위적으로 꽃가루를 묻혀주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수나무만 있는 경우에도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

키위나무의 암수 구별은 잎이나 가지 모양으로는 구별이 어렵고 꽃 기관의 생김새로 확인해야 한다. 암꽃에는 꽃 중심에 여러 개의 암술과 주변에 수술이 분포한다. 다만, 암꽃의 수술은 퇴화해 암나무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수꽃의 경우에는 암술이 아예 없고 수술만 존재한다.

따라서, 키위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려면 암나무를 구매하고, 5월쯤 꽃이 필 때 반드시 인공수분을 해주어야 한다. 대부분 암꽃보다 수꽃이 늦게 피기 때문에 지난해에 채취한 꽃가루를 건조한 상태로 냉동 보관한 뒤 인공수분을 하면 된다. 나무가 많은 경우엔 전용 인공수분기를 활용하고 1~2그루 재배할 때는 꽃가루를 붓에 묻혀 발라준다.

인공수분 대신 암나무와 수나무를 함께 심어 벌들이 인공수분을 대신하도록 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암나무 6그루당 수나무 1그루 정도의 비율로 섞어 심는다. 참고로, 암나무와 수나무의 꽃 피는 시기가 겹치지 않으면 곤충 수분은 쉽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정경호 남해출장소장은 "기후변화로 키위 재배지역이 북상하고 있고, 키위가 건강 기능성 과일로 인식돼 최근 키위 재배를 시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며 "키위나무의 암수 꽃을 보면 성별을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으므로 과수원이나 재배지 상황에 맞게 수분 작업을 시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NH전북, 복지시설 9곳에 설 맞이 후원금 전달

NH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승철)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내 복지시설 9곳에 소의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김승철 전북지역본부장은 지난 8일 수년간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자매결연기관인 소화진달래집(지적장애인 생활시설)을 찾아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금안노인복지센터 등 8개 기관에도 후원금을 전달했다.

기부대상 사회복지시설은 여성지적 장애인, 아동, 장애인, 독거노인 등 돌봄시설로, 김 본부장은 지역 소의계층과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 상인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을 후원금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NH는 지역 내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행복동행서비스, 복지시설 후원, 문화센터 운영, 찾아가는 주거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아왔다.

김승철 본부장은 "설 명절을 맞아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NH 전북본부는 지역사회와 동행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축산물로 '情 나눔'

전북농협, 김제·부안 냉해피해 농가에 전달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사)나눔축산운동본부 전북도지부(지부장 김철수)는 9일 광화농협에서 냉해피해 농가를 위한 '나눔축산운동 情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재호 본부장, 김태관 본 김제시지부장, 김철수 전주김제완주축협조합장, 신광식 광화농협 조합장, 농업인 등이 함께 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 한파로 인해 냉해피해를 입은 김제지역 농가를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제와 부안 지역 240여 피해농가에 돼지고기(목살, 전지) 세트를 전달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설 명절을 맞아 냉해피해 농가들을 축산인의 정성을 담은 축산물을 전달하는 정 나눔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며 "작은 물품이지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되어 피해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포스코건설, '더샵 디오션시티 2차' 사이버 견본주택 오픈

주택 분야 스마트 기술 브랜드 적용

포스코건설이 9일 군산에서 선보이는 '더샵 디오션시티 2차'의 사이버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더샵 디오션시티 2차는 2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3일 1순위, 24일 2순위 청약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접수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3월 3일이며, 계약은 3월 15~19일까지 5일간 실시한다.

군산 디오션시티 A5블록(조촌동 2-28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더샵 디오션시티 2차'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6개동 총 771세대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84㎡A 442세대 ▲84㎡B 111세대 ▲84㎡C 36세대 ▲106㎡ 125세대 ▲124㎡ 54세대 ▲143㎡ 1세대 ▲154㎡ 2세대로 최근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이상의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됐다.



포스코건설 '더샵 디오션시티 2차' 조감도

세대 내 기기 공용부 정보 음성인식 앱 제어 가능 단지 내·외부에 동체감지기 등 설치 사각 없애 '우리 집 앞 안심서비스'로 안전관리 대폭 강화 22일 특별공급·23일 1순위... 당첨자 발표는 내달 3일

이 집 앞의 수상한 서성거림을 알려주는 '우리 집 앞 안심서비스'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더샵 디오션시티 2차가 들어서는 군산 디오션시티는 약 59만㎡의 면적에 공동주택 6,400여세대, 거주인구 1만7,000여명이 계획된 미니 신도시급 복합도시로, 도시 내 전북 최대 규모의 롯데몰이 있으며 금강유치원(가칭), 연안초(가칭), 군산동부권도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차로 10분 이내에 군산시청, 시외버스터미널, 월명종합경기장, 동군산병원이 위치해 정주여건도 뛰어나다.

비규제지역인 군산은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주택형별 예치금 등의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재당첨 제한이 없고 대출규제도 달해 계약금 완납 후에는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사이버 견본주택에는 사업일대 생활인프라와 미래가치, 조경 및 커뮤니티를 소개하는 인포그래픽 영상과 견본주택 대표팀 내부 영상, 청약 전 유의사항을 설명한 청약 웹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다.

/군산=한경봉 기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 여파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설 명절의 풍성함 되찾길"

전북중기청, 전통시장 장보기... 방역수칙 준수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은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 여파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전주 남부시장·신촌중앙시장, 익산 중앙·매일·서동시장, 군산 공설·신명시장 등 도내 3개 지역에서 동시 진행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소그룹으로 나눠 분산 진행한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힘들어하는 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전통시장의 철저한 방역 이행 및 안전한 장보기 환경 회복을 통해 방문객 이용 확산 기여를 위해 마련됐다.

윤종욱 청장은 "오늘 행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설 명절의 풍성함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했다"며 "모든 전통시장이 코로나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 더 많은 분들이 시장을 찾아 전통시장에 활력을 제공해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우리 전북중기청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지역 기관들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한국철도 전북본부, 설 명절 나눔을 통한 온정 전달

한국철도 전북본부(본부장 차경수)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전북 각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활동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명절을 외롭고 힘들게 보내게 될 도내 소의계층을 위로하고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만 참여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다. 특히,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사랑의 성금'을 통해 도내 사회복지시설(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외 10개소)에 약 7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과 생활용품을 전달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은행 방문없이 가능한 'NH모바일 아파트대출 2.0'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을 통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대출상품 'NH모바일아파트대출2.0'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대출한도는 구입자금은 최대 5억 원, 생활안정자금은 최대 1억 원이며, 상환방법은 원금균등할부상환과 원리금균등할부상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3년 초과 33년 이내(거치기간은 최대 1년)다. 급여이체 실적(0.25%p), 농협은행 신용·체크카드 이용 실적(0.25%p), 자동차(0.10%p), 비대면 신청우대(0.20%p) 등 최대 1.40%p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윤상 기자

CK안전유리, 남원일반산단에 이달부터 본격 가동 채비

남원시 사매면 일반산업단지에 지난 2020년 10월 6일 전라북도 및 남원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11월 착공에 들어갔던 (주)CK안전유리가 3개월여 만에 공장 건축과 기계 설비 설치를 마무리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남원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중 준공을 거쳐 공장 가동에 들어가는 첫 번째 기업인 CK안전유리는, 부지 24,950㎡에 총 170억원을 투자하고 병창고, 세탁기, 오븐 등에 사용되는 관유리를 절단, 면취, 인쇄, 강화하는 라인을 설치, 연간 500만장 이상의 관유리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CK안전유리는 세계적인 가전제품 생산업체인 월플과의 계약으로, 연간 150억원 이상의 매출이 기대된다.

지난 8일 건축 준공과 함께 공장설립 완료를 신고한 CK안전유리는 최근 COVID-19 팬데믹으로 지역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규 투자와 50여명에 이르는 고용인력 창출로 남원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남원=김기두 기자